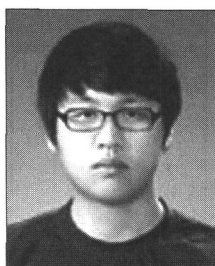


미래 월간 낙농육우는 낙농육우산업의 천리안(千里眼)이 돼주길...



박근재
전남 영암 보림목장

월간 낙농육우를 정기 구독하고 있는 애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31번째 생일을 맞이한 월간 낙농육우와 동갑내기 구독자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조금 특별한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관이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 중에서도 무게감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월간 낙농육우는 반드시 꺼내어 보는 애독자입니다. 내용 역시나 무게감만큼 알찬 정보도 많기 때문이지요. 매달 발행되는 월간 낙농육우를 기다리는 건 낙농인이라면 당연지사입니다. 매일 발행되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신문과는 다르게, 그간 궁금했던 낙농산업 소식이나 관련 뉴스를 자세히 다루고 이에 관련된 많은 자료가 실려있기 때문에 월간 낙농육우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 소식 이외에도 주요 해외 선진낙농산업의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양관리 팁 또한 고마운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낙농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정독을 하고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합니다. 월간 낙농육우는 낙농 전문매거진으로서 현재까지 총 360호를 넘는 기록을 남기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불어 나아가 우리 월간 낙농육우가 보통의 전문지에 머무르지 말고 낙농산업의 필수 전문지로 거듭나길 바라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균형 있게 발전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축산관련 뉴스와 정책을 전해주고 알리는 낙농육우산업의 천리안이 되고, 지금보다 더욱 알찬 전문 매거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